

# 濟州島方言의 “낭” 語考

金 洪 植

## 目 次

- |                |                  |
|----------------|------------------|
| I. 序 言         | III. 接尾辭 / - ㄱ / |
| II. 語幹의 分析和 考察 | IV. 結 語          |

## I. 序 言

濟州島는 本土와 遠隔한 絶海의 孤島라는 地理的 歴史的 特殊 與件으로 그 言語에 있어서, 改新波의 影響을 받음이 늦어 顯著한 閉鎖性으로 濟州島(以下 本島) 自體로서 獨特한 分化的 發達을 遂行하여 왔다고 보아지며, 또한 言語의 古層位도 다른 어느 地域方言 보다도 많이 保存되어 있을 可能性이 濃厚하다고 보아진다.

그러므로 濟州島方言(以下 本島方言)은 方言學으로 또는 言語地理學으로 特異한 研究 對象이 됨은 勿論, 言語의 古代性的 暗示가 國語의 史的研究에 도움이 되는 바가 많으리라고 생각된다. 오늘날 이미 埋沒되었거나 埋沒되어 가는 語의 露頭를 찾아 내어 얻어진 資料에서 15世紀의 國語 形態를 抽出하여 낼 수 있음은 勿論, 文獻 以前時代 國語의 再構에도 많은 示唆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本島方言이 他地域方言보다 顯著한 差異를 示顯하고 있는 것은 分裂되기 以前의 言語狀態를 維持하고 있는 데 있다. 音韻이나 語彙面에서도 그러하러니와, 特히 派生接尾辭等 形態論의 領域에서는 더욱 顯著한 것으로, 造語論으로 特異한 語尾와 接尾辭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接尾辭는 한 語彙가 出發點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加重해서 附加해 간다. 그러므로 接尾辭는 한 語彙를 方言化시키는 重要한 原因이 되는 것이다.

다음에 接尾辭의 接尾形態에 따른 方言化의 例를 本島方言에서 몇가지 例示하여 본다.

2 는 문 집

〈標準語〉	〈濟州島方言〉
이마(額)	이맹이
	임맹이
머리(頭)	대맹이
	대강이
	대망생이
	대강생이
목(喉)	목애기
	목암지
	목아마지
턱(頤)	턱가리
복숭아(桃)	복송개
꽃(花)	고장
도미(銅)	동치, 돔바리
바늘(針)	바눔

以上 보는 바와 같이 한 語彙의 方言의 特色을 表示하는 데는 接尾辭의 接尾作用의 役割이 کم을 많 수 있을 것이다. 卽 接尾辭는 한 語彙를 方言化 시키는 重要한 原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本島方言에서 “木”을 意味하는 語辭로는 “나무, 남, 낭”等 多樣한 形態가 共時態로서 共存하고 있다. 本 小稿에서는 이들 語辭들에 대해서 造語論의 觀點에서 그 語幹形成을 考察의 主要 目標로 하고, 우선 그 形態를 分析하여 그 語根 및 接尾辭를 抽出하여, 各各 이에 대한 共時的 通時的 考察을 試圖하여 보기로 한다.

“語”는 造語論上에서 볼 때 概念을 表示하는 音韻의 集合體이며, 그 語形을 分析함으로써 지금까지 看過한 여러 原理를 捕捉하게 되는 것이다.

共時的 事實이 언제나 通時的 變化過程을 反映한다고만은 認定할 수 없으나, 적어도 社會의 空間에서나 地域의 空間에서 일어나는 變異들은 時間的 次元에서 일어났던 變異의 結果物 들임에 틀림이 없기에, 方言資料에서 보여 주는 諸 現象은 通時的 變異過程을 反映하여 주는 한 歷史的 所產이라 할 것이니, 文獻資料上의 言語素材의 問題點들을 現代方言의 共時的 狀況속에서 많은 暗示와 糾明됨이 있으리라고 생각 되며, 또한 方言資料上에 있어서의 言語의 共時的 狀況과 問題點은 歷史的 變化로부터 이끌어 내질 수 있으리라고 본다.

本 小稿에서는 이러한 觀點에 主眼하여 方言語彙 “남, 낭” 語의 語幹形成을 分析 考察하여 이들 語辭가 갖는 共時的 通時的 意義에 대해서 管見을 들어 보고자 한다.

## II. 語幹의 分析和 考察

本島方言에서 “나무”를 이르는 語辭로는 大體로 “나무, 남, 남” 등의 語形이 共時態로서 實現된다. 그런데 이들 中 “나무”는 改新波의 影響에 依한 共通語系이고 보면 方言의 特色을 지닌 것은 “남, 남” 兩形뿐이라고 할 것이며, 이 兩 語形이 共時的으로 共存하고 있다고는 하겠으나, 原語民間에 있어서 그 使用頻度上으로 볼 때는 “남”形이 훨씬 優勢하다. 그리고 語彙의 意味上으로는 전혀 同價의 것이라고 보아지나, 이 語辭가 實現되는 語彙的 環境에는 兩者間에 相當한 差異가 있는 것으로 보아지니, 다음에 本島方言에서 實現되는 兩 語辭의 語例를 들어 본다.

### a) “남” 語

남, 남이, 남을, 남에  
남쌈, 남알, 남토막, 남깨기  
소남, 폭남, 정남, 보릿남, 무남

### b) “남” 語

남신, 남죽, 남박, 남맹이, 남방애

위 語例에서 볼 때 /남/形은 完全 自立語形으로서 그 語幹 /남/에 “이, 을, 에…” 등의 助詞를 自由롭게 取할 수 있으며, 單獨語形으로는 勿論 複合語를 形成할 때도 語頭나 語末에 自由롭게 連結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남/은 完全自立語素 (free form)로서 本島方言에서 一般性 있게 使用되는 데 대해서, /남/ 語形은 그 使用 範圍에 있어서 /남/形보다 相當한 制約을 받고 있음이 그 特徵이다. 卽 그 使用 頻도에 있어서도 /남/形에 미치지 못할뿐 아니라 單獨語形으로는 使用되는 일이 없으며, 다만 複合語를 形成할 때 語頭에서만 連結될 뿐 語末에도 連結되지 못한다. 語末에서는 /남/ (nan) 卽 /ŋ/ 音が 連結됨이 一般的이다.

以上 兩 語形이 示顯하는 方言의 實態에서 볼 때, 이들 兩 語形 中 /남/形이 本島方言을 代表할 수 있는 語形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에 이 /남/ 語辭의 語幹形成을 考察함에 있어서 먼저 그 語幹을 分析하여 보아야 할 것이나, 이 /남/ 語形의 形態에 대하여는 몇 學者들이 論及한 바가 있다.

玄平孝博士는 “/남기/의 /ㄱ/이 /ㄱ/의 影響으로 말미암아 逆同化現象을 입어 變異

된 語形이라고 推定하였으며”<sup>1)</sup> 또 홍순탁씨는 “na - ŋ”은 “namu”의 뿌리 “nam”의 變異形態로 “nam”의 /m/이 /g/에 同化되어 /ŋ/으로 變動을 일으킨 것이라고 하였다.<sup>2)</sup> 또 崔鶴根氏는 “[na - mo]形이 短縮해서 「남」[Nam], 或은 「낭」[Nag]形으로 된 方言도 있다”고 하였다.<sup>3)</sup>

以上 諸氏는 이 /낭/ 語形이 同化作用에 依한 變異形態 乃至 [Na - mo]의 短縮形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이 /낭/ (nag) 語形이 方言地域上에서는 어떻게 分布되어 있는가를 小倉進平博士의 「朝鮮方言의 研究」(上)에서 알아 보기로 한다.

[nag] : 濟州, 城山, 西歸, 大靜

[nag - ge] : 巨濟

[nag - gu] : 順天, 靈岩, 木浦, 谷城, 公州, 江景, 舒川, 洪尙, 天安, 淸州, 忠州, 京城, 開城, 漣川, 襄陽, 江陵, 三陟, 金川, 延安, 海州, 甓津, 苔灘, 長淵, 殷栗, 安岳, 載寧, 瑞興, 遂安

[nag - gi] : 新高山, 安邊, 德源, 文川, 高原, 永興, 安平, 咸興, 五老, 新興, 洪原, 北靑利原, 豐山, 甲山, 惠山, 淸津, 會寧, 鍾城, 慶興

[nag - i] : 黃州, 平壤, 博川, 寧邊, 熙川, 龜城, 江界, 慈城, 厚昌

[nag - Ki] : 梁山, 東萊, 釜山, 金海, 馬山, 晉州, 居昌, 陝川, 昌寧, 密陽,

[neŋ - gi] : 馬山, 巨濟, 端川, 城津, 吉州, 鏡城

[neŋ - i] : 明川, 羅南, 富寧, 茂山

〈朝鮮方言의 研究 上卷 p.333~334〉

以上과 같이 各各 分布되어 있어 이들 語例에서 볼 때, /ŋ/ 末音을 가진 /nag/系 語形이 本島方言에만 局限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 地域方言 語形中에서 /nag/ 單獨形은 오직 本島에서만 實現되는 唯一形임도 알 수 있게 되었다. 卽 이 /nag/은 前述한 바와도 같이 單獨形으로 使用되는 自立語素임을 推定케 한다.

또 陸地部 諸 地域方言에서는 前揭한 바와 같이 그 語形이 “nag - ge, nag - gu, nag - gi, nag - K'i, neŋ - gi” 등으로 그 語形이 多樣性을 이루고 있으나 이것은 그 語根은 /nag/이라고 보아지며, 여기에 / - gi / 型 類의 接尾辭와 그 變種들이 後接하여 第二次的 語幹形

1) 玄平孝, “濟州島 方言의 層位學的 考察”, 『池憲英先生華甲紀念論叢』(1971), p.832.

2) 홍순탁, “‘까상구’어고”, 『한글 제 163 호』(서울:한글학회, 1976), p.43.

3) 崔鶴根, 『方言學序說』(서울:精研社, 1959), p.297.

成을 遂行한 것이라고 보아진다. 그래서 이 /gi/ 類 接尾辭를 除去하여 버린 것이 /naŋ/ 이며, 이 /naŋ/은 語根 乃至 그 一次의 語幹으로 自立性을 갖는 自立語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本島方言에서는 이 “naŋ” 形에 陸地部 方言에서와 같이 “gi” 類의 接尾辭가 添加되지 않음이 그 特徵이라고 하겠다.

이런 等으로 미루어 볼 때, 本島方言에서의 이 /naŋ/ 形은 元來부터 單獨形으로서, 完全 自立語素였다고 推測되며, 따라서 後接하는 /ŋ/ 音의 逆同化作用에 依한 變異形態라고 하기보다는 이 “naŋ” 形의 形成은 本島의 方言的 現象에서 미루어 볼 때, 音韻論的 事實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形態論的 事實로 把握하는 것이 더 妥當할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다음으로 이 “나” 語形은 그 自體 더 分析이 不可能한 根源的 語根인지 또는 더 分析이 可能한 것인지가 問題다. 이에 대해서는 흔히 그 語幹의 限界에 대하여 格語尾와 活用語尾를 除去한 나머지를 語幹이라 보아 왔는데, 이러한 形態論的 考察은 그 語幹形成에서 再考할 點이라고 본다. 여기서 /나/도 根源的 /na/와 接尾辭 /-ŋ/의 連結로 이루어지는 語幹形成을 推定할 수 있다. 卽 이것은 接尾辭 -ŋ-系의 連結된 造語方式으로 이러한 造語方式을 잊고서는 國語의 史的 考察에 意外의 過誤를 犯하게 된다. 語幹形成에서 一見 分析 不可能한 語辭도 흔히 分析되어야 할 것이며, 거기서 語幹形成의 方式을 抽出해야 한다. 그래서 이 語幹을 分析함으로써 지금까지 看過한 여러 原理를 捕捉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나/의 根源的 語根으로 /나/를 抽出하여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玄平孝博士는 “濟州島方言에는 語幹 또는 語尾에 「ㅇ」이 接尾되는 일이 많은데, 이 「나」이란 語形도 或이면 「나」에 元來 接尾辭인 「ㅇ」이 添加되어 形成된 것이 아닌가 推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였다.<sup>4)</sup> 이렇게 보면 /나무/의 語源의 語根으로 /나/에까지 推定하여 올라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傍證할만한 文獻的 資料를 뒷받침할 수가 없으므로 다만 그리 推定하여 볼 뿐이다.

그런데 國語에서 볼 때 이 “나”는 元來 “木”을 包含한 禾穀, 蔬菜類 等を 意味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여겨진다. 現代語에서 “나물”(蔬) 語辭도 造語上으로 볼 때 “나+물”로 分析하여 볼 수도 있는 것이니 卽 語根 /나/에 派生接尾辭 /물/이 連結되어 그 語幹形成을 한 것이라고 推定하여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또 “나물” 語辭의 根源的 語根이 /나/임은 同系語와의 比較的 觀點에서 보더라도 많은 暗示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卽 日本語에서는 “菜”를 意味하는 말로 “na”가 있으며, 또 “漢清文鑑”에도 “生菜”를 意味하는 말로 “namu”가 있는 데, 이런 等으로 미루어 볼 때 “나물”의 根源的 語根을 /나/로 推定하여 보는 것이다.

4) 玄平孝, op. cit., p.6.

또 國語에서 “나락”(禾) 語辭도 그 語幹 分析을 “나+락”으로 分析하여 볼 수도 있으니, 이것은 語根 /나/에 接尾辭 /-락/의 連結로 形成된 것이라고 본다. 여기서도 語根 /나/를 抽出하여 볼 수 있으며, 接尾辭 /-락/의 語例로서는 “도시락, 벼락, ㄱ시락(本島方言), 들락날락” 등의 語例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또 本島方言 語辭인 “나시”(齊)는 元來 “나시”의 /나/에 /ㄴ/음이 添加되어 “나시”가 된 것으로, 이것은 一種의 子音添加現象으로서 本島方言現象에서는 이 외에도 “돛비(두부), 돛배(도마), 간치(까치), 던덕(더덕)” 등과 같이 많은 語例를 찾아 볼 수가 있다.

이 “나시”는 15世紀 文獻에서는 “나이”로 쓰였으나 그 原形은 “나시”로 본다. 그리하여 우리는 흔히 이 語幹을 /nasi/로 보고 아무런 疑心을 가지지 않으나, 이것은 /nasi/로 分析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na/는 語根이며 /si/는 接尾辭로서 國語에서도 “보시(甫兒), 통시(便所), 각시(女子, 新婦), 접시(小皿), 말씨(言辭)” 등과 같이 그 語例를 많이 찾아 볼 수가 있다.

以上에서 볼 때 本島方言 /남/은 /na/와 /ŋ/으로 그 語幹을 分析하여 볼 수 있으니 /na/는 根源의 語根이며, /-ŋ/은 接尾辭로서 語根 /나/에 接尾辭 /ㅇ/이 添加되어 第二次的 語幹을 形成한 것이라고 본다.

다음에는 本島方言에서 /남/形과 더불어 雙形으로 共存하고 있는 /남/ 語形の 語幹形成에 대하여 알아 본다. 前述한 바와 같이 /남/形은 그 使用範圍에 있어 制約을 받고 있는 것이니, 單獨形으로는 使用될 수 없고, 複合語 및 派生語를 이룰 때 語頭에서만 使用되고 있는 實狀이다.

앞에서 /남/ 語辭의 語幹 分析에서 語根 /나/의 抽出을 推定하여 보았거니와, 이 /남/形의 構成도 “나+ㅁ”으로 分析하여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卽 根源의 語根 /나/에 名詞形成 接尾辭 /ㅁ/이 添加되어 /남/이 形成된 것으로 推定된다. 이 /-m/은 名詞形成의 接尾辭로서 Altai 諸語에서도 發見되는 共通的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다음에 몇 語例를 들어 본다.

土耳其語: ali (받는다) > alym (領收)

je (먹는다) > jem (食事)

öl (죽다) > öl-um (死)

蒙古語: narad (놀다) > narad-um (놀음)

國語에서도 “숨(息), 짐(荷), 그림(畫), 여름(實), 어름(氷)…” 등과 같이 語末에 /-m/ 接尾 體言을 많이 찾아 볼 수 있으니, 國語에는 動詞派生名詞의 接尾辭와 動名詞의 語尾로 使用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겠다.

또 日本語에 있어 語末이 /mi/로 된 語彙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다음에 몇 語例를 들어 본다.

na - mi (波)	mo - mi (粃)	u - mi (海)
ka - mi (紙)	se - mi (蟬)	go - mi (塵)
ha - sa - mi (鉄)	yu - mi (弓)	

위 語彙들에 있어서 語末音節 /-mi/는 派生名詞形成 接尾辭 /-m/와 /-i/로 分析하여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며, 여기서 抽出되는 /-m/은 國語에서와 같은 名詞形成 接尾辭라고 推定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本島方言 語彙 “남, 남”의 語幹形成에 대하여 造語論的 觀點에서 그 語幹을 分析 考察하여 보았다. 그러면 다음에 이들 語辭들이 通時的으로는 어떠한 意義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 文獻資料와도 比較하여 본다.

方言에서의 特殊한 言語現象들은 各其 그들 自體의 歷史性을 갖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卽 靜態言語學的 秩序에 屬하는 言語事實로서 그러한 事實의 由來, 理由를 알기 爲해서는 進化言語學에 依存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 많다. 卽 共時態(synchronie)가 通時態(diachronie)에 依해서 說明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國語에서 通時的研究는 中間期 文獻의 缺乏으로 15世紀 訓民正音 以前으로 溯及하여 올라 가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여기 “남, 남”語의 究明에 있어서도 먼저 15世紀 文獻資料를 中心으로 해서 그 據點을 追跡하여 그 關係를 살펴 보고, 여기서 그 語幹을 分析 抽出하여 내어 現代 共通語形 乃至 本島方言 語形으로의 分化 過程을 言語의 歷史的 變化의 結果로 把握하여 보려 한다.

나무(木)를 意味하는 最初의 記錄인 12世紀初의 文獻 雜林類事에서 찾아 보면

木曰南記  
松曰鮓子南  
柴曰李南木

란 記錄이 있으며 또 15世紀 文獻에서도

불휘 기픈 남곤 <龍歌: 2>  
남골 일코 슬돗다 <矢木悲> <杜謠: 21>  
이본 나모와 <龍歌: 89>  
나모목(木) <訓蒙: 下·3>

등의 記錄을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雜林類事에서 보면 “나무”에 대한 語形을 “南記南, 南木” 등으로 記錄되어 있으니, 그 解讀에는 學者에 따라 多少間 異見은 있다고 하겠으

나 大體로 “南”은 “남”, “南木”는 “나모” “南記”는 “남기, 남ㅁ” 程度가 그 近似值가 될 것이다.

또 15世紀 文獻의 記錄에서는 그 語幹이 大略 “남, 남, 나모” 등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들 語形에서 語幹을 어떻게 劃定하느냐가 問題이다. 이에 대해서는 學者間에도 多少間 意見을 달리하고 있으니, 다음에 몇 學者들이 主張한 바를 들어 본다.

金亨奎博士<sup>5)</sup>는 「南記」를 /남ㅁ/로 解讀하고 /나무/의 原語를 /남ㅁ/로 보았다. 그래서 이 語形은 語間子音 [g]의 脫落에 依하여 “남ㅁ>남으(나ㅁ)>나모>나무”와 같이 變하여 온 것이라고 하였다.

李基文博士는 “‘나모’는 古代에는 ‘나ㅁ’이었는데 어떤 理由로 休止나 子音앞에서는 末子音이 脫落하여 ‘나ㅁ>나모’가 되고 母音 앞에서는 二音節 母音이 脫落하여 ‘남’이 된 것으로 推定된다”고 하였다.<sup>6)</sup>

許雄博士<sup>7)</sup>도 “나무”의 옛말에는 “나모” “남”의 두 語形이 나타나는데 “나모”에 一定한 助詞가 붙을 때에는 “나모”의 末母音이 줄어지는 同時에 ㄱ이 添入되어 “남”이 된다고 하였다.

崔鶴根氏는 “「나모」[Na-mo]形이 短縮해서 「남」[Nam], 或은 「낭」[Nag]形으로 된 方言도 있다”라고 하였다.<sup>8)</sup>

以上 諸氏가 主張한 바는 枝葉的인 差異는 있다고 하겠으나, 根本的으로는 같다고 보겠다. 卽 “나무”의 基本的 語幹을 “나모”로 보고 있으며, 이 “나모”의 語末母音의 縮約 乃至 短縮形을 “남, 남”으로 보았음에 그 共通點을 찾아 볼 수가 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와는 反對的 立場에서의 主張을 들어 본다.

劉昌淳氏<sup>9)</sup>는 “나모”는 “남”에 接尾辭 “오”가 接尾하여 形成된 語辭로 보았으며, 또 李崇寧博士<sup>10)</sup>는 “남”을 語根(第一次語幹)으로 劃定하였으니 卽 “나모”는 語根 “남”에 名詞化 接尾辭 /-오/의 連結로서 第二次 語幹形成을 한 것으로 보았다. 오직 語根 “남”에 連結되는 “-기, -근, -굴” 등의 格語尾는 第一次 語幹에 直結된 것이란 特異性을 認定했다.

以上 兩氏가 “나무”의 語幹을 다 같이 /남/으로 보았음에는 共通된다고 하겠으며, 이 /남/에 名詞形成 接尾辭 /오/가 接尾하여 第二次 語幹形成을 遂行한 것으로 보고 있는

5) 金亨奎, 「古歌謠註釋」(서울:一潮閣, 1968), p.6.

6) 李基文, 「國語史概說」(서울:民衆書館, 1974), p.154.

7) 許雄, 「龍飛御天歌」(서울:正音社, 1979), p.14.

8) 崔鶴根, op.cit., p.297.

9) 劉昌淳, 「語彙史研究」(서울:三文社, 1976), p.229.

10) 李崇寧, “國語造語論試攷”, 「震檀學報 第十八卷」(서울:震檀學會, 1957), p.53.



것이다.

以上 諸氏의 主張에서 보면 “나무”에 대한 15世紀 國語에서의 語根 乃至 語幹은 /나모/와 /남/의 二形態로 集約하여 볼 수가 있다. 이 兩 語形中 어느 것이 妥當性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리 簡單히 云謂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言語의 研究에 있어서 共時的 研究가 通時的 研究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이 事實이나 그와 反對로 共時態가 通時態의 研究에 대해서 많은 暗示를 주고 있음도 事實이다. 오늘날 國語의 通時的 研究에서 方言資料가 갖는 比重은 자못 크다고 할 것이니, 그것은 方言이 文獻資料의 缺乏과 缺陷을 補完해 주는 것이기 까닭이다. 方言 속에는 도리어 文獻語 以前의 言語의 古形도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더욱이 絕海의 孤島라는 地理的 條件과, 歷史的 特殊性을 지니고 있는 本島方言에서는 더욱 그러리라 생각된다.

本島方言에서의 /남/ 語形에 대해서는 前述한 바이나, 이 語形은 오늘날 本島方言에서만 實現될 뿐 陸地部 諸方言에서는 그 例를 찾아볼 수가 없다. 前述한 바 文獻的 事實과 또 本島와 같은 僻地에 이 /남/ 形이 殘存되어 있음은 決코 偶然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本島에서 實現되고 있는 /남/ 語의 方言的 實態에서 볼 때, 앞에서 諸學者가 推定한 “나무” 語의 15世紀 語形 “나모, 남”의 二 語形中, 그 原形을 /남/으로 보는 것이 더 說得力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래서 이 語形은 陸地部 諸方言에서는 이미 消滅되어 버렸으나 本島에서만 오늘날까지 殘存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推定되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으로 本島方言 “남, 남”의 兩 語形은 共時的, 通時的 觀點에서 볼 때, 어떠한 意味를 가지는 것이며, 이 兩 語辭中 어느 것이 古語形인가에 대해서 管見을 들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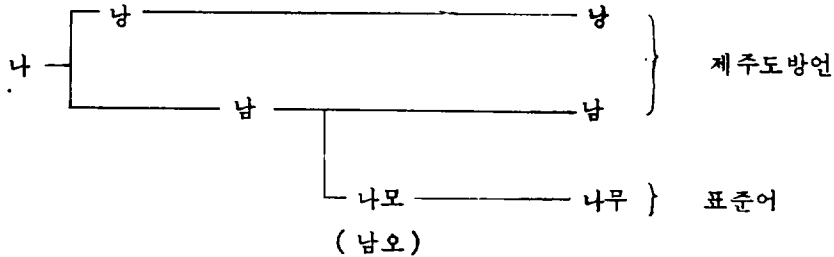
/남/ 語形은 12世紀 乃至 15世紀 文獻語에서 抽出하여 낼 수 있을뿐더러, 오늘날 國語方言에서는 全然 그 語例를 찾아 볼 수 없음에서 /남/ 形보다 더 古形 같기도 推定된다. 그런데 /남/ 語形은 文獻上에서는 抽出하여 낼 수는 없으나, 오늘날 國語方言에서 널리 分布되어 있으며 특히 本島方言에서는 그 使用 頻度가 가장 높은 一般性이 있는 語形이라는 點에 있다. 여기서 한가지 疑問은 오늘날 諸 地域方言에서 廣域的으로 分布되어 있는 /남/ 語形이 文獻上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點이다. 그것은 아가 이렇게 推測하여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卽 /남/은 根源的 語根 /나/에 接尾辭 /-ŋ/이 添加되어 第二次的 語幹 形成을 이룩한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이는 相當한 古形으로 文獻 以前時代까지 溯及하여 올라갈 수 있는 것이라고 推測되거나와, 그 後 이 /남/은 새로 出現한 改新波에 밀려 文獻時代에 와서는 그 語勢가 衰落하여 微微한 方言的 存在로 轉落하여 버린 것이 아닌가 臆測을 하여 본다.

이와 같은 推測은 比較言語學的으로 볼 때도 그리 推定되니, 특히 古代 土耳其語나 蒙古語

에서는 이 /-ŋ/ 接尾辭가 附加되어 語幹形成을 한다고 하는데, 國語에서도 語根 또는 語幹에 隨時 이 /-ŋ/이 連結되고 있어 恰似히 後代의 發達 같이 보이나 實은 古形의 接尾辭가 連結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것이며, 文獻上으로는 別로 찾아 볼 수가 없으나, 그 形成이 文獻 以前時代로 溯及하여 볼 수 있는 相當한 古形으로 推測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naŋ/ 語形은 過去 文獻上 記錄에서는 비록 찾아 볼 수 없게 되었으나, 方言語形으로서 오늘날 各 地域方言에 널리 分布되어 내려 온 것이 아닌가 한다.

또 語根 /나/에 名詞形成 接尾辭 /-ŋ/이 添加된 /남/形도 國語上에서 일찍부터 出現한 것으로 보며, 그래서 이들 /남, 남/ 語形은 雙形으로 共存하여 오다가 어느 時期에 와서 이中 /남/形이 言語的 優位를 確保하게 되고, 言語 傳播에 있어서 改新波로서의 影響을 미치게 되면서부터 이 /남/形은 새로 登場한 改新波인 /남/에게 밀려나게 되어, 文獻時代에 와서는 이 改新波인 /남/形만이 文獻에 記錄되고, /남/ 語는 文獻語에 가려진 俚語로 轉落되면서 오늘날 方言에서만 그 語形을 남기게 된 것이 아닌가 推測된다.

그래서 文獻語形 /남/은 다시 여기에 派生接尾辭 /오/가 接尾되어 /나모/形이 되었으며, 이것은 또 그 後 母音調和가 次次 混亂되면서 다시 /나무/로 變換한 것이 現代 共通語形이라고 본다.



이와 같이 /남/ 語形은 /남/보다 더 古形으로 推定하여 볼 수도 있지 않을까 臆測을 하여 본다.

이 /남/ 語形이 過去 文獻上 記錄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理由만으로 /남/ 語形보다 後代에 出現된 것이라고 볼 수 만은 없다고 보아지며, 事實 오늘날 國語方言中에는 도리어 文獻語보다도 古形이 남아 있는 事例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이다.

本島方言에서 볼 때도 15世紀 文獻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으나, 도리어 文獻語 以前의 古語形이라고 推定되는 語例들을 相當數 찾아 볼 수 있다.

本島方言에서 그 一例를 들어 보면 “므르, 므를”이란 語辭가 있다. 이는 元來 山嶺 乃至 丘陵 地帶를 意味하는 語辭로서, 이 語辭의 15世紀 語形은 “므르”이며, “므르”의 古代形은 “므를”이었던 것으로 推定되니, 本島方言의 “므를”은 15世紀 文獻 以前의 “므

를”과 脈絡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推測되거니와, 이에 對해서는 李崇寧博士도<sup>11)</sup> 言及한 바와 같이 本島方言에 이 “므르, 므를”의 變形이 存在한다는 것은 李朝語 以前의 古代語 再構에도 하나의 暗示를 던져 주는 것으로, 方言이 國語의 史的 研究에 크게 寄與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 本島方言에는 다음과 같은 語彙들도 殘存되어 있으니 이들 語辭들도 15世紀 文獻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古語形이라고 본다.

ㅁ술(秋)    아시(弟)    아버지(親)    툄(山)    도(通路, 出入口)  
난시(齊)

以上 語例等으로 미루어 보드라도 本島와 같은 特殊與件을 가지고 있는 僻地에 文獻語보다 더 오랜 古語層이 殘存하여 있을 可能性은 充分히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낭/ 語形이 오늘날 本島方言에 殘存하고 있음은 決코 偶然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이런 點 等으로 미루어 볼 때, 本島方言의 /낭/ 語形에 接尾辭 /-ŋ/의 添加는 音韻論的 事實도 아니며, 또한 中間期에 /낭/ 語形에서 /ㅁ/ 接尾辭 代身 交替된 것도 아니라고 보아지니, 이는 하나의 造語論的 事實로서 그 起源을 文獻 以前時代로 溯及하여 올라가 볼 수 있는 相當한 古形으로 推定하여 본다.

### III. 接尾辭 /-ŋ/

지금까지 /낭/ 語辭의 形態를 分析 그 語根을 抽出 考察하여 보았다. 다음에는 이 語根에 接尾하는 接尾辭에 대해서 考察하여 본다.

前述한 바와 같이 /낭/ 語는 根源的 語根 /나/에다 派生接尾辭 /-ŋ/이 接尾 形成된 것으로 그 形態를 分析하여 볼 수가 있다. 이것은 卽 “R+ŋ”의 한 造語方式으로서 現代 韓國語 造語方式으로 널리 알려진 事實이며, 이 “R+ŋ”의 造語方式에 對해서는 李崇寧博士가<sup>12)</sup> 일찌기 通時的, 共時的으로 廣範圍하게 다룬 바 있거니와, 이와 같은 事實은 現代 韓國語뿐만 아니라 中世語에서도 나타나는 한 現象으로 造語方式에 있어서 한 두드러진 事實이다.

다음에 文獻에서 그 事例를 들어 본다.

11) 李崇寧, 「國語學論攷」(서울:東洋出版社, 1960), p.288.

12) 李崇寧, 「國語造語論攷」(서울:乙酉文化社, 1961), pp.36~88.

- 긴(柱) : 긴+옹 > 기둥 > 기둥  
 구리 기둥(銅柱) <內訓序. 4 >  
 기둥애 반드기 스리라 <杜諺. 三. 21 >  
 골(谷) : 골+앙 > 고랑  
 고랫 피사리라(谷響) <榜嚴. 八. 55 >  
 돌(溝) : 돌+앙 > 도랑  
 돌구(溝) 돌거(渠) <類合. 上. 18 >  
 말(場) : 말+앙 > 마당  
 마뜰 다오매(築場) <杜諺. 七. 18 >  
 벌(崖) : 벌+앙 > 벼랑  
 벌해 벼론 빗 다호라 <樂學. 動動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것은 名詞 語幹에 接尾辭를 連結하여 새 名詞形 語幹을 形成하는 造語法으로, 이같은 現象은 中世語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데, 이때 大概의 境遇 單音節語인 名詞에 添加하는 일이 많다.

이와 같이 韓國語에서는 大體的으로 名詞形 語彙에 接尾辭 /-ŋ/을 添加해서 發展한 一連의 語彙들이 많다. 特히 本島方言에 있어서 이 /-ŋ/의 添加는 한층 두드러진 現象으로 語幹 또는 語尾等에 어느 類型 아래의 複合體로서 複雜한 形態로 連結되고 있다.

다음에 一般化한 共通語系는 除外하고 다만 本島方言의 特色을 지녔다고 생각되는 語彙中에서 그 事例를 들어 본다.

1) “R + -ŋ”型

바당(바다)      대양(대야)      마농(마늘)      바농(바늘)  
 광(뼈)      아지망(아주머니)      할망(할머니)  
 광(짐 따위를 내려 놓는 돌)

2) “R + °ŋ”型

a) -aŋ :

고장(꽃)      아방(아버지)      고망(구멍)

b) -əŋ :

어멍(어머니)      그시렁(꼬으름)      트멍(뜸)

c) -0ŋ :

오몽(動)

d) -uŋ :

지똥 (기똥) 지붕

3) “R + -ŋi” 型

막대이 (막대기)	망탱이 (망태)	곶갱이 (호미)
글갱이 (글게)	기갱이 (機械)	조갱이 (조개)
대강이 (頭)	꺼랭이 (까끄라기)	주맹이 (囊)
고냉이 (貓)	상통이 (상투)	생이 (새)
퀵이 (퀴)	갱이 (계)	이맹이 (이마)
구쟁이 (소라)	지냉이 (지내)	

4) “R + °ŋi” 型

가쟁이 (枝)	뉘랭이 (乾)	꼴랭이 (尾)
보맹이 (女陰)	누냉이 (燒飯)	울랭이 (오리)
것갱이 (꺼어진 수저)	걸랭이 (아기를 업는 데 쓰는 끈)	
소앵이 (영경퀴)		

5) “R + C°ŋ” 型

땃성 (憎)	쇠스랑 (鐵把)	입성 (着衣)
그시렁 (끄으름)	먹성 (食慾)	고정 (直)
일성 (事)	두리숭 (愚)	심방 (무당)
시방 (숙)		

6) “R + C°ŋi” 型

입맹이 (額)	등맹이 (背)	남맹이 (莖)
뱃맹이 (腹)	병맹이 (塊)	돌맹이 (石)
부짓맹이 (부지쟁이)	귀똥이 (耳)	읍맹이 (齶)
들랭이 (田)	패랭이 (帽冠의 一種)	공쟁이 (釘)
홍쟁이 (보첩)	얼맹이 (農具)	굿갱이 (尖)
원갱이 (왼손잡이)	저쟁이 (겨드랑)	

이와 같이 本島方言에서 “-ŋ” 子音의 介入은 더욱 方言化를 促進하는 要因이 되었다고 보며, 오늘날 고장 (花), 바늘 (針), 마늘 (蒜) 과 같은 特殊하게 느껴지는 語形도 그 實은 이 “-ŋ” 系 接尾辭의 添加에 依한 것이다.

以上 “-ŋ” 系 接尾辭가 連結하여 名詞形成을 하는 경우를 6 가지 類型으로 分類하여 볼 수 있다. 本稿에서는 이 6 가지 類型中 그 考察 對象인 /낭/ 語辭의 語幹形成과 關聯해서 語例 1) “R + ŋ” 型과 2) “R + °ŋ” 型에 대해서만 舉論키로 한다.

語例 1)에서는 낭(木), 바당(海)과 같이 “-ᄃ” 接尾辭가 語根 또는 語幹에 直接 添加하여 語幹을 形成하는 것으로, 이것은 音韻論的으로는 說明할 수 없는 한 造語論的 事實로 볼 것이다.

語例 2)는 現代 韓國語 造語方式 가운데 “R + ᄃ”의 方式으로 널리 알려진 事實이다. 만+앙>마당(庭), 꽃+앙>고장(花), 검+엇>검멍(黑), 움+옹>오몽(動). etc. 이와 같은 事實은 現代 韓國語뿐만 아니라 15世紀 國語에서도 나타나는 現象으로 造語方式에 있어 한 두드러진 事實이다.

그리고 이 “R + ᄃ”의 造語方式에서 이때 添入되는 接尾辭의 母音의 變種은 -a-, -ə-, -o-, -u- 等 四種이 나타나나, 其中 特히 -a-, -ə- 兩母音이 優勢하다. 이것은 大概 母音調和의 影響을 받아 일어 나는 것이라고 본다.

이때 添入되는 母音의 機能은 大體로 두가지 側面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音韻論的으로 보아 語幹末이 子音으로 끝나게 되면 接尾辭 /-ᄃ/과의 連結에서 子音衝突이 일어나게 되니 이를 防止하기 爲해서, 卽 一種의 調聲母音이 添入하게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바로 이 母音이라고 본다. 둘째로는 造語論的 觀點에서이니, 語彙가 單音節形인 境遇에는 母音을 더 添加시킴으로써 語形 伸張을 遂行하여, 語形上 意味上的 安定을 圖謀하려는 데서라고 생각된다. 接尾辭가 붙고 또는 複合語를 이루는 大多數의 語例가 語形을 補強하려는 努力의 結果로 볼 것이 많다고 생각되며, 이는 많은 語彙의 語形變化의 通時的 考察에서 볼 때 首肯이 가는 것이다.

以上에서 考察하여 본 바로 /낭/ 語辭는 語源的 語根 /나/에 接尾辭 /-ᄃ/이 直接 添加된 形態로, 이것은 卽 “R + ᄃ”의 造語方式으로서 바당(海), 대양(大匣) etc.과 같이 語根 또는 語幹에 이 /-ᄃ/ 子音을 添加하여 第二次 語幹 形成을 한 것인데, 이것은 現代 韓國語의 한 造語方式으로 널리 알려진 事實이다. 이와 같은 現象은 現代 韓國語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通時的으로 볼 때, 中世 國語에서도 나타나는 現象으로서, 造語方式에 있어 한 두드러진 事實임은 前述한 바이나, 本島方言에 있어서 이와 같은 現象은 特히 顯著하여 豐富한 資料와 多樣한 變形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다. 또 語根과 語幹에 接尾辭 /-ᄃ/이 接尾하여 새로운 語幹을 形成하는 造語方式은 그 根源을 古代語로 溯及할 수 있으며 古代 土耳其語와 共通된 現象으로 알려져 있어, 特히 本島方言에 이와 같은 現象이 두드러짐은 決코 偶然이 아닐 것이며, 이것은 本島方言에 言語의 底層이 아직도 保存 維持되고 있음을 示唆하여 주는 것으로서 國語史的으로도 매우 큰 意義를 갖는 것이라고 본다.

## IV. 結 語

以上 本島方言 “남, 남” 語에 대해서 그 形態를 分析하여 語根 및 接尾辭를 抽出 各各 이  
에 대한 共時的 通時的 考察을 하여 보았다.

本島方言에서 “木”을 이르는 語辭로는 “나무, 남, 남” 등이 있으나, 方言의 特性을 示  
顯하여 주는 것은 “남, 남” 兩 語形뿐이며, 이들은 各各 共時的으로 共存하고 있으나 談話  
에서 實現되는 頻度上으로 볼 때 /남/이 越等 優勢하다.

/남/ 語形은 /남/ 또 /남기/에서 /ㅁ/이 /ㄱ/音에 同化되어 卽 逆同化現象에서 變  
異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 實現되는 方言의 現象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남/形은 元  
來 單獨形으로 推測되며, 따라서 이것은 音韻論的 事實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形態論的 事實  
로 把握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남/ 語는 그 語幹을 /나/와 /ㅇ/으로 分析하여 볼 수가 있겠는데, /나/는 根元의  
語根이며, /ㅇ/은 接尾辭다. /나/는 /나무/의 語源의 語根으로 元來는 木을 包含한 禾  
穀, 蔬菜類 등을 意味하던 것이 아니었던가 推測되니, 國語에서 보거나 또 同系語 等과의 比  
較的 觀點에서 볼 때 그리 推定된다.

다음에 /남/形은 /나/에 /ㅁ/ 子音이 添加 形成된 것으로 /나/는 前述한 바와 같  
거니와, /ㅁ/은 名詞形成의 接尾辭로서 Altai 語에서 發見되는 共通의 인 것이다.

다음에 “남, 남” 兩 語辭가 갖는 共時的, 通時的 意義面에서 보면, /남/은 雞林類事와  
15世紀 文獻에서도 抽出되는 것이니, 本島方言의 /남/도 이와 同價의 것으로 볼 때, 本  
島方言에는 아직도 中世語의 古形이 殘存 維持되고 있음이라고 보아진다.

/남/系 語形은 文獻上에서는 그 語例를 찾아 볼 수가 없고, 오늘날 方言에서만 남아 있  
으므로, /남/보다 後代에 形成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方言에는 文獻語보다도 더 오  
랜 古語形이 殘存하여 있는 境遇도 있다고함과, 本島와 같은 僻地에 이 /남/ 語形이 共時  
態로서 優勢하게 實現되고 있음과, 또 比較的 觀點에서 볼 때 이 /남/ 語形이 /남/形  
보다 더 古形으로 推定된다.

/남/의 /ㅇ/은 接尾辭로서 音韻論的 事實도 아니며, 또한 中間期에 다른 音과 交替 添  
加된 것도 아닌 하나의 造語論的 事實로서, 그 起源을 文獻 以前時代로 溯及하여 올라가 볼  
수 있는 相當한 古形으로 推定된다.

/남/의 語幹形成은 “R + ㅁ” 型의 造語方式으로 이것은 國語의 한 造語方式으로 널리  
알려진 事實이나, 특히 本島方言에서는 이 /-ㅁ/의 接尾가 尤甚하여 豊富한 資料와 多樣한  
變形을 나타낸다.

이 “R + ɲ”의 語幹形成 方式은 古代土耳其와도 共通된 現象으로 알려져 있는데, 比較的 觀點에서 보아 매우 重要的 意義를 갖는 것이라고 보아진다. 特히 本島方言에 이와 같은 現象이 顯著함은 決코 偶然이 아닐 것이며, 國語의 史的 研究에도 示唆함이 많으리라 여겨진다.



– Summary –

### A Study on the Word, “nag” Spoken in the Dialects of Jeju-Do

Hong-Sik Kim

1. Among the words meaning “tree” in the dialects of Jeju-Do are “namu”/namu/, “nang”/na ㄱ/, and nam/nam, etc.. But “nang” and “nam” alone have the originality and the diacronic explanation of the dialect of Jeju-Do, and are used to the present respectively. Moreover, according to the frequency with which, and the lexical environment in which these words are used, the first “nang” is superior to the latter “nam”.

2. The word, “nang” is to be analyzed into /na/plus /-ㄱ/, of which /na/ is a basic root and /-ㄱ/, a suffix.

3. The word, “nam” is composed of /na/ plus consonant /-m/. /Na/ is a root and /-m/ is a noun-making suffix. This ending very often occurs in the Altaic language, too.

4) “Nang” and “nam” have the diacronic significance linguistically. Both the words can go back to the written language of the 15th century or prior to that century. The word “nang” of the two is assumed to be more archaic.

5. The word, “nang” in its stem analysis is divided into /na/ + /ㄱ/, where /ㄱ/ is a suffix. This word is made in the way of combining /R + ㄱ/. The word-making method of combining /R+ ㄱ/ is extremely common the Korean language. Especially, the /-ㄱ/ ending very often occurs in the dialects of Jeju-Do and provides us with much materials and various variants.